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촌 인근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가에도 직불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관련 지원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 교육활동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어촌 근처에 거주하면서도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을 지원하고, 우리 해운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적선원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신선호 (044-200-5160) 허서영 (044-200-5163)
-------	--------------------	------------	------------	--

대한민국

지자체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법안명	주요 내용	비 고
1	선원법 (이연희·조승환·서영교 의원 →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조항 적용 ○선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 근거 마련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선원정책과 한성민서 김행숙서 (044-200-5745, 5743)
2	선박입출항법 (정부 → 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입법에 따른 내항어선 출입신고 조항 삭제 (「어선안전조업법」 기 규정 사항) 	항만물류산업과 최종일서 (044-200-5775)
3	수산물기술진흥법 (정부 → 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과학기술 교육훈련 실시대상에 '어촌 청년' 추가 	소득복지과 김영민홍 (044-200-5463)
4	수산업기본법 (정부 → 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수산업 인력확보 지원대상에 '청년수산업인' 추가 	수산정책과 신철용홍 (044-200-5425)
5	수산직불제법 (이양수의원 →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 범위 확대로 상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수산직불제팀 신배근서 (044-200-5452)
6	수중레저법 (조경태의원 →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수중 레저교육자를 배치토록하여 안전관리 강화 	해양레저관광과 박상배홍 (044-200-6186)